

한·일학술교류회 회장인사말

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세무사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자격사들에게 깊은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한 생존전략을 위하여 연구용역·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긴끼세리사회와도 함께 제4차산업혁명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몽골 AOTCA 회의장에서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님과 오구라 국제부장님을 만났을 때 친한 친구처럼 반가웠습니다.

내일 아사다 회장님과 임원님 여러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다니 개인적으로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귀한 손님들 맞이하느라 직원들이 청소도 깨끗이 하고, 맛있는 차도 준비하고,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바빴습니다.

고급 귀빈들이 오시니까요!

끝으로 아사다 회장님과 임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오늘과 내일 부산의 늦가을 정취를 듬뿍 느끼시고 좋은 추억을 간직한 채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3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강정순

긴끼세리사회·부산지방세무사회
「제14회 학술교류회」 (2018.11.23)
긴끼세리사회 회장 아사다 츠네히로 인사문

안녕하십니까。 (アンニョン ハシムニカ)

긴끼세리사회 아사다 츠네히로 회장입니다。

오늘, 강정순회장님을 비롯하여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과 이 곳 부산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께서 제 14 회 학술교류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준비에 만전을 다 하신 점을 마음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귀 회와 당회는 교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05년 11월부터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친선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커다란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지난해부터 토론회를 교류회 형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만, 오늘의 학술교류회가 양 회를 상호이해하고 우호를 더욱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교류회가 될 것을 마음 깊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강회장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무에 대한 시연식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2023년 10월부터 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급진전하고 있는 AI 나 IoT 등의 기술혁신은 세리사, 세무사의 업무에 밀접히 관련되고 있으며 앞으로 귀 회와 함께 의견교환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는 AOTCA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귀 회에서는 그 행사준비에 아주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성공적인 행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 회가 더욱더 발전하시고 강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건강과 융성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カムサハムニダ。)

2018년 11월 23일

긴끼세리사회
회 장 아사다 츠네히로